

# 美 금리인상 막바지... 대출자, 고정 vs 변동 금리선택 고민

5대은행 고정금리 3.70~5.90%  
변동금리는 4.09~5.86%대 집계  
동결 예상엔 '고정', 하락 '변동' 유리  
금리 저렴한 '인터넷은행'도 대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으며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AP·뉴시스

치솟던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을 고려했던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국내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미 연준은 이번달에 4.75~5.00%였던 기준금리를 5.00~5.25%로 0.25%p 올렸다. 이는 2007년 8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미국은 침체된 경기를 감안해 금리 동결 가능

성을 시사했다. 또 경기침체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70~5.90%, 변동금리는 연 4.09~5.86%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 주택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 수준은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은이 지난 2월과 4월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한달새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아졌다. 현재 5대은행의 전세대출금리(2년 고정)는 3.49~5.93%로 한달 전(3.46~5.92%)보다 소폭 상승했다.

따라서 업계는 금리가 한동안 안 내릴 거라고 보면 고정금리로 묶는 게 낫지만, 하반기에 내려간다고 판단하면

변동금리가 낫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정금리의 경우 통상 3년 안에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 금리가 저렴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중 지난 3월 중 취급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카카오뱅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평균금리는 5.11%로 5대 시중은행(5.57~6.00%)과 비교해 최대 0.9%p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한도대출(마이뉴스통장)의 경우도 카카오뱅크의 평균금리(5.59%)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5.87%), 신한은행(5.93%), 케이뱅크(5.97%)가 뒤를 이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여행·외식만 회복세... 경기회복 선순환은 아직 요원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노동절 연휴 여행객 2억7400만명  
전년비 70%, 코로나 이전비 19% ↑  
3월 광공업생산·고정자산투자 둔화

중국발 혼풍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동절 황금 연휴동안 여행객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보복여행'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지만 온기는 소비, 서비스업에 한정됐다. 향후 경기전망도 악화되는 등 소비 개선이 제조업 회복과 투자 확대에 이어지는 경기

회복 선순환은 아직 요원하다.

7일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객은 2억7400만명으로 전년 대비 70.8%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9.1% 증가해 노동절 여행객 수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광수입 역시 1480억위안(한화 약 28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8.9% 급증했고, 2019년 대비로도 0.7%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수입이 2019년보다 많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온라인 여행플랫폼인 트립닷컴에 따

르면 연휴 기간 동안 국내 관광지 입장권 판매액은 작년 대비 9배, 2019년 대비로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여행 예약 건수도 작년 노동절보다 700% 가까이 급증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노동절 소매판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외식이 57.9%로 전체 소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이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약한 기대 등 '3중 압박'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강한 회복세가 여행과 외식에만 그쳤다는 데 있다.

골드만삭스는 "노동절 연휴 데이터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소비와 서비스 회복에 좋은 징조"라면서도 "이동성의 완전한 회복과 역눌렸던 소비 지출과 같은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 가장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은 이제 다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가 제조업 회복이나 투자 확대에 이어지는 경기회복 선순환 고리는 오히려 약화됐다.

실물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3월 소매판매만 예상치를 크게 웃았으며, 광공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는 예상에 못 미친 것은 물론 1~2월보다도 둔화됐다.

향후 경기를 가능할 수 있는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9.2로 4월달만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이신 제조업 PMI 역시 4월 49.5에 불과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제조업 PMI가 기준점인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부양 동력이 소진됐음을 시사한다"며 "서비스 회복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오래 지속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t1@

## 인사말씀

이번 故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의 상사시(喪事時)에 깊은 애도와 조의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는 것이 도리이오나 아직 황망중에 있어 우선 지면을 빌려서나마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8일

미망인	홍임선	손 자	이기환, 이성환, 이태환
자	이경하, 이동하, 이정하	손 녀	이성은, 이민경, 이수민
녀	이진하	외손자	이인환, 이승환
자 부	장선영, 조선경, 이희정	외손녀	이지운
사 위	이동찬	외손부	이낙규 배상

故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의 상례에 정중한 조의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JW그룹 임직원 일동 올림

## 코로나 위기단계 '심각' → '경계' 하향조정 예고

질병관리청, 하향엔 의무격리 기간 5일로  
입국 3일 이내 PCR검사 권고조치도 종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공식 해제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월 PHEIC를 선포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PHEIC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방역 당국도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일(현지시간) 개최된 제15차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의 위기단계 역시 조만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고 거의 매일 발표하는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바뀐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제되고,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이후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를 거쳐 3단계에선 완전 일상회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단계는 7월,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WHO는 아직 팬데믹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라며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WHO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향후 코로나19 후유증 연구와 하수역학 등 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